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        | 2022.4.28.(목) 조간<br>2022.4.27.(수) 11:00 | 배포 일시 | 2022. 4. 27.(수) 06:00  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해양환경정책관실<br>해양생태과                       | 책임자   | 과 장 이재영 (044-200-5310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사무관 최재용 (044-200-5315) |

## 백령도는 지금 점박이물범 맞이 준비중

- 해수부,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점박이물범 서식지 환경개선 활동 -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백령도 주변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서식지 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점박이물범은 국내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기각류(鰐脚類)\*의 일종으로,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하고 봄이 되면 먹이와 휴식처를 찾아 백령도 주변 해역과 가로림만 해역으로 이동해 오는 바다동물이다. 과거에 비해 현재 그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 지난 2007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멸종위기 해양포유류이다.

\* 기각류: 물개, 바다표범 등 지느러미형태의 발을 가진 해양포유동물

점박이물범은 국내에서 서식하는 기각류 중 유일하게 특정 서식지에 정주하는 종이다. 우리나라는 인천광역시 백령도 주변이 최대 서식지로, 연간 200~300여 마리가 관찰되고 있다.

해양수산부는 점박이 물범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백령도 인근 해역에 인공섬터를 조성하고 먹이자원 방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.

서식지 환경개선 활동은 서식지 주변으로 밀려온 폐어구나 해양쓰레기 등 잠재적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, 지난 2020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,

지난 2년 간 폐어구 등 총 2.7톤의 폐기물을 수거·처리하였다.

이 행사는 백령도에서 수년간 점박이물범 보호에 앞장서 온 “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”, “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” 등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, 옹진군 등 지자체와 해양환경공단이 참여할 예정이다. 특히 올해는 해양생물 전문 민간기업인 “롯데월드 아쿠아리움”과 “아쿠아플라넷 일산”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동참하는 등 어느 해 보다 뜻깊은 행사가 될 전망이다.

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“체계적인 서식지 관리를 통해 매년 봄이면 우리바다를 찾는 점박이물범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할 것이다.”라며, “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백령도 지역사회와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통해 지역주민과 점박이 물범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.” 라고 덧붙였다.

## 참고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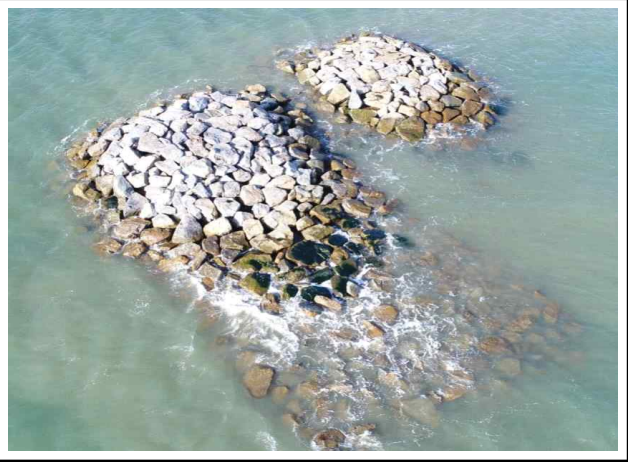
## 점박이물범 생태학적 특성

| 증명 | 점박이물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학명 | <i>Phoca largha</i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크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체 : (몸길이) 수컷 1.7m, 암컷 1.6m, (체중) 80~130kg</li> <li>출생시 : 평균체장 80cm, 평균체중 10kg(평균수명 30~35년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분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황해, 동해, 오호츠크해, 캄차카반도, 베링해, 알래스카 연안에 서식하며 국내는 백령도가 가장 큰 서식지로 300여 마리가 여름을 보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특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몸 색깔 : 회색이나 황갈색 몸체에 검은색과 점무늬가 산재</li> <li>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은 황해 개체군으로 1월~3월 중국 보하이만·랴오둥만 유빙(遊氷) 위에서 새끼를 낳고, 봄에 남하를 시작하여 산둥반도와 백령도에서 여름을 지낸 후 늦가을부터 다시 보하이만·랴오둥만으로 이동</li> <li>주로 어류와 두족류를 먹이로 삼음</li> <li>1940년대 황해 전체에 약 8,000마리가 서식했으나 가축·약재·고기 등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남획으로 1980년대에 2,300마리로 급감하고 2000년대 이후 약 1,20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</li> </ul> |
| 비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해양생태계법」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지정(해양수산부, 2007)</li> <li>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(환경부), 천연기념물 제331호(문화재청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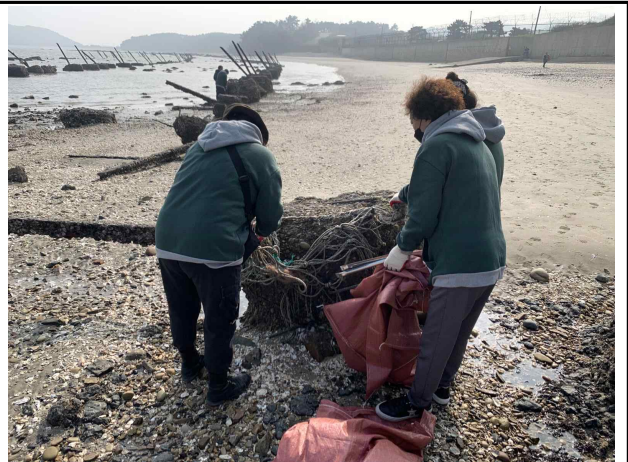
## 참고2

## 행사 사진(2021년 행사)

### ☐ 서식지 현장확인



### ☐ 서식지 정화활동



### ☐ 지역주민 간담회

